

# 민들레향기

리 철 진

이 행성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꽃을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꽃이 아름다운 모양과 빛깔 그리고 류다른 정서를 주는 향기를 지니고있기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향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된다.

한것은 향기가 없는 꽃은 그 아무리 모양과 빛깔이 아름답다 하여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향기를 폐부로 느끼며 각이한 정서에 잡겨 기쁨을 맛본다.

허나 나는 오늘 폐부가 아니라 심장으로 느끼는 향기,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에게나 다 하나의 류다른 정서를 불러주는 꽃향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

기쁨도 많은 새해의 첫 등교길에 나선 나는 대학생이 된 긍지를 안고 교문에 들어섰다.

강의실에 들어선 나는 류다른 광경에 굳어져버리고말았다.

책상마다에 티 한점없이 정갈하고 정교한 고급학습장들이 그득히 쌓여있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담임선생님은 더 말을 잊지 못했다.

표지에 솜털같은 하르르한 꽃송이가 미풍에 날려 창공을 떠도는, 동요시절 눈에 익은 환희로운 정경이 펼쳐져있고 《민들레》글발이 새겨진 정갈한 학습장이 선생님의 손에서, 모두의 손에서 가볍게 떨리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우리모두의 자애로운 아버지원수님께서서 우리 학생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습장을 가슴가득히 안겨주신것이다.

나의 눈앞에는 불현듯 개교전날마다 좋은 학습장을 가방에 가득 채워주며 웃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우뚝이 떠올랐다.

자식들의 책가방에 제일 좋은 학습장들을 한가득 넣어주고싶은것이 아버지의 소박한 소원이였던 것이다.

그 소원이, 온 나라 천만부모들의 그 소박한 소원이 바로 오늘 이 세상 가장 정깊고 제일로 친근

하신 위대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속에 이루어진 것이였다.

《아버지》.

모두가 심장으로 조용히 뇌여보는 이 부름이 커다란 공명이 되어 강의실에 울리고 이 부름과 함께 나는 무엇인가 나의 심장에 뜨거이 흘러드는것을 느꼈다.

그것은 다름아닌 민들레향기였다.

심장으로 느끼는 향기, 그것은 정이고 사랑이였다.

후대들을 위하여서는 억만금을 기울이는 내 조국에서만이 풍겨나는 사회주의향기이고 천만자식을 뜨겁게 안아키워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기울여주시는 정이고 사랑이였다.

우리들이 입고있는 교복과 학습장의 갈피마다와 책가방의 고운 문양 하나에도 아버지원수님의 사랑과 정이, 그이의 뜨거운 체취가 어려있는것이다.

예로부터 자식 하나 키우는데 오만공수가 든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원수님은 이 나라 천만자식을 모두 한품에 안아 세상에 부럼없이 키워주고계시니 그 억만공수를 어찌 헤아릴수 있으랴.

우리 학생들이 메고다니는 책가방에도, 우리가 신고다니는 신발 하나하나에도 다심한 어머니사랑이 깃들어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지난해 류원신발공장을 찾으시여 우리가 만든 운동신발, 체육신발들을 신고 기뻐할 인민들과 아이들, 체육인들을 생각하니 정말 흐뭇하다고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그 사랑이 온 나라의 해빛따사론 배움의 창가마다 넘쳐흐르고 그 사랑속에 우리 학생들은 조국을 위하여 배워나간다.

나는 마음다졌다.

아버지원수님 보내주신 이 학습장에, 친어버이정이 가득 고여 향기그윽한 민들레학습장우에 최우등의 성적을, 충정의 마음을 새겨가리라고...

(평북종합대학 신의주제2사범대학 학생)